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4:18-25(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8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하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백 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2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23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24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18-19절)

→ _____

- 불가능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20-21절)

→ _____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22절)

→ _____

- 바울은 이 이야기가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23-25절)

→ _____

-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18절)고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 _____

- 내 삶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경험이 있나?

→ _____

-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 내가 현실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거나 의심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25절) 이 복음이 오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4:18-25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다고 강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다'는 그의 말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었다는 것으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복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 부부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만 바라보는 한결같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또한 응답을 요청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